

대학생의 사회자본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안관수¹, 황재연^{2*}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Occupational Aspiration in University Students

Kwan-Su An¹, Jae-Yeon Hwang^{2*}

Department of Education, Won Kwang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콜맨(Coleman)의 사회자본을 근거로 대학생의 사회자본(부모-자녀관계, 인적 네트워크, SNS 활용)이 진로포부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변인 부모의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진로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다중회귀 모형으로 확인한 결과 사회자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활용 및 정보의 도움 정도는 직업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계층 이동에 대학생의 사회자본의 소유 및 획득 과정이 중요한 성취지향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주제어 : 사회자본, 직업포부, 인적네트워크, 사회관계망서비스, 부모-자녀관계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Occupational Aspira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parent-child relationship, human network, and SNS use) on the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 in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Coleman's Social Capital Concept. To achieve this,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as conduc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Other variables, except for parent's occupational of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vocational aspiration. Also, as a result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human network obtained from social activities, Social Networking Service use and usefulness of information - social capital factors -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occupational aspiration. Such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cess of possessing and acquiring social capital among university students served as an important achievement-oriented value in terms of social mobility.

• Key Words : Social Capital, Occupational Aspiration, Human Network, Social Network Service, Parent-Child Relationship

*Corresponding Author : 황재연(hjy2011@wku.ac.kr)

Received June 2, 2017

Accepted September 20, 2017

Revised July 23, 2017

Published September 28, 2017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직업지위 수준의 향상은 대학교육의 경험보다는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가 직업지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1]. 이러한 현실은 좋은 학벌이 계층이동에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서열주의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대학 진학률이 69.8%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진 반면에,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어났다[2]. 이는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가액으로 위계가 더 높은 대학으로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간의 위계서열이 직업지위 서열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방하남·김기현[3]은 Thurow(1972)가 제시한 ‘방어적 투자’ 개념을 근거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키기 위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여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려한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직업지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직업 지위 획득에 어떠한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 직업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무엇보다도 직업포부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4,5,6].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직업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에 도달한다는 일련의 연구[6,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연구를 통해 직업포부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직업포부 수준이 직업지위 성취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면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8,9], 양육방식[7,10], 사회, 문화자본[4,5] 등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직업포부도 학업성취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자녀의 계층이동을 고착화 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별도로 가정배경에서 기인하는 불평등한 격차를 감소 시키는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콜맨[11]은 사회자본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 갖는 귀속적 특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변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배경의 제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비록 부모의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이 풍부할지라도 가족 내의 사회자본 즉, 부모-자녀의 관계가 부족하면 교육성장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은 구조적인 요인보다 관계적인 요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대학생의 직업지위 수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분석한 연구 [4,12]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나 대학생 스스로 공적·사적인 사회활동 속에서 형성하게 되는 가족 외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콜맨[11]이 분류한 사회자본 즉, 가족 내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사회자본의 하위 변인들이 직업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가족 내 사회자본인 부모-자녀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7,13,14]. 또한 가족 외 사회자본으로는 인적네트워크를 선정하여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가 있다[4]. 이들의 연구에서는 인적네트워크가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로 사회관계를 측정하여 개인이 소유한 정보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귀속적 원인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연계 되는 직업정보인지 개인의 활동에 의해 연계 되는 직업정보인지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볼 때[15]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영향 외에도 개인이 스스로 공적·사적 활동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인적 네트워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인터넷의 보편화로 대학생들은 SNS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이로 인해 유용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 등을 얻게 되면서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활동을 통한 사회관계형성과 직업포부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연유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도 사회자본의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이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자본(부모-자녀관계, 인적 네트워크, SNS활용)이 진로포부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콜맨의 사회자본 분류를 근거로 부모-자녀관계를 가족 내 사회자본으로, 대학생이 사회활동을 통해 획득한 인적네트워크와 사회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 관계를 가족 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의하기가 모호하다[16].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진 초창기 학자는 부르디외이다. 부르디외[17]는 전통적으로 물질자본의 개념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을 지속성이 있고 다소간에 제도화된 상호 교류 또는 인지 관계의 네트워크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화라고 정의하였다[13]. 이는 사회자본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구축한다고 본 것이다.

학업성취의 직접적인 영향 변인으로 사회자본을 주장한 콜맨[11]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형성되거나 혹은 공동체 내 관계 속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통해 형성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달리 사회관계나 제도 속에 참여하여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식이나 정보, 규범, 규칙 등을 공유를 통해 획득하고 가치를 증가시키기도 한다[18]. 특히 그는 사회자본을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가족 내 사회자본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와 정서적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나 지원이 결여되면 부모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17].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 진로성숙, 사회적

과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13,18,19]. 신희경·김우영[20]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을수록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찾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대체로 네트워크와 상호호혜성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 부르디외[17]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크기는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그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필수적인 요소이다[41].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만으로는 사회자본이 생성되지 않는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관계의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 보다 잘 형성되며 네트워크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무와 기대, 신뢰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21].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높은 위계의 직업에 속한 사람을 알고 있을 경우 관련 직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위스콘신 모형과 린과 듀민[22]의 연구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는 인적네트워크 뿐 만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세대의 스마트폰 사용 확산과 빈번한 인터넷 사용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 간편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물론, 새로운 직업 정보나 취업시장 정보의 제공이 또 다른 사회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지만 이영수·이재신[23]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용자 간에 교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인터넷은 정보격차가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가의 개인화를 부추기고 있는 점을 들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사회자본 생성을 방

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는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24,25,42]. 그러므로 대학생이 대내의 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업 관련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맥 형성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개인이 형성한 관계에 주목하여 콜맨의 사회자본에 기반하고 있다. 가족내 사회자본은 부모-자녀의 관계를 변인으로 하고, 가족의 사회자본은 인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직업포부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직업포부

직업포부는 자신의 흥미, 능력, 성취동기 등을 반영한 희망 직업으로[25], 이는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특히, 대학생의 직업포부는 막대한 직업포부를 가졌던 중·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포부를 계획한다. 이는 직업지위획득을 위해 입시경쟁을 겪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 시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위스콘신 지위획득 모형에서는 ‘의미 있는(중요한) 타인’을 알고 있는 여부에 따라 교육과 직업에 대한 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27]. Swell, Haller & Portes[27]의 연구에서 제시한 위스콘신 모형은 직업포부가 첫 직업을 얻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직업포부는 학생 자신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있어 직업지위 수준의 향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직업포부가 직업지위 획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진영·유백산[9]은 부모의 학력, 직업지위, 소득수준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지위에 따라 직업포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효과를 분석하여 아버지의 고학력과 어머니의 고학력이 결합되거나, 아버지의 고학력과 자녀의 높은 성적이 결합되면, 직업포부에 대해 증폭효과가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포부가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4,7]. Ashby and Schoon[27]은 직업포부 수준에 따라 향후 사회경제적 직업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업포부 수준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연구도 있다. 이종범·최동선·오창환[29]은 부모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배경을 어떤 요인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자본 요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외에도 부모-자녀의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인적네트워크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 등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계층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의 종합이다[30]. 사회적 지위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며 주로 그 사람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지표로 해서 측정된다. 이에 비해 경제적 지위는 해당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입을 지표로 측정한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일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결정적인 요인이며, 그것이 부모의 사회계층을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계층은 직업지위, 재산, 교육수준, 소득 등의 객관적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일계층의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 지식수준,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 8, 31].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계층 이동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직업포부수준이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위스콘신 모형이 있으며, 김진영·유백산[9]의 연구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업포부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장기영[32]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육기회 및 자원의 수준이 차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계층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하위 변인을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직업지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낸다. 이는 최근 사회경제적 지위를 직업지위로 측정하는 연구[31]에서 직업의 임금이 직업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주관적 직업 위세와 임금을 기준으로 구분한 직업 지위 간의 관계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유홍준·김월화[33]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직업지위를 통해 구분하고 분류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무선 표집한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와 응답 문항이 동일한 형태를 보인 설문지를 제외한 총 271명의 응답만을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로 설정하였다. 응답한 자료의 선별은 우선 부의 학력을 채택하였으며, 부의 학력이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모의 직업을 채택하였다. 한 부모가 정도 고려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을 선별하였다. 학력수준은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학력 중 전문대의 경우는 14년을 부여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작성된 직업 중 직업위계가 높은 한 사람의 직업을 선택하였다. 직업위계표는 홍두승의 직업위계 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여 계급을 범주화 한 김유진[34]의 직업위계표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계층 분류를 1점에서 5점으로 부여하였다<Table 1>.

3.2.2 직업포부

직업포부 척도는 O'Brien(1992)이 개발하고 황정훈[35]이 수정 사용한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0문항으로 제작되었으며 직업포부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9이다. 각 문항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포부수준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7이다.

3.2.3 사회자본

이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으로 분류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인 부모-자녀의 관계를 측정한 도구는 현지영[14]이 한국교육고용 패널 1차년도 자료에서 사용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현지영[14]의 문항들은 신뢰도(Cronbach's α)는 .887이다. 이 연

<Table 1> occupations hierarchy table

Class category		Job category
Upper class	Upper class	capitalist, conglomerate owner, high-ranking governmental official
	Upper-middle class	high-ranking specialized jobs (doctor, engineer, lawyer,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accountant, professor, general, etc)
Middle class	New intermediate class	low-ranking specialized jobs, teacher, entertainer, religious workers, subaltern governmental official, general company clerical force(large company, banker)
	Old intermediate class	independent merchant and self-employed service provider, restaurant and accommodation provider, general company employee, self-supporting technician, transportation apparatus driver, etc
Lower class	Working class	service industry worker (attendants at restaurants and accommodations, beautician) manufacturing supervision(employee), travelling salesman, shop assistant, skilled workman, etc
	Urban underclass	peddler, visiting housekeeper, sweeper, simple worker, apprentice, etc

구에서 신뢰도는(Cronbach's α)는 .89이다.

가족 외 사회자본은 공적·사적 활동을 통해 형성하고 유지되는 인적네트워크와 취업활동과 관련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인적네트워크를 묻는 문항에서는 부모의 배경으로 얻게 되는 사회자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직을 가진 친인척을 배제하였다. 대학생 시기에 대내·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중 직업으로 구분하여 심경섭·설동훈[4]이 사용한 Treiman의 SIOPS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응답방법은 설문지에 직업을 5개 이내로 작성하게 하여 점수를 주었다. 심경섭·설동훈[4]이 사용한 방식으로 응답한 직업 중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값만 부여하고 다양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경우 폭넓은 네트워크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점수를 합산하였다.

SNS 활용정도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의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심 직업과 관련된 사회관계망 서비스(카페, 블로그,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등)에서 가입 후 활동여부, SNS 및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의 도움 정도로 구성하였다. SNS 활용 여부는 '그렇다'와 '아니다'로 구성하였으며,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SNS 정보의 도움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3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를 통해 평균과 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직업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인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사회관계망 서비스 통해 얻은 정보의 도움 정도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각 설정하고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은 4단계 모형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의 학력, 부 또는 모의 직업 변인이 대학생의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확인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에 투입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과 더불어 가족 내 사회자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다. 3단계 모

형에서는 1,2 단계 모형에서 투입한 변인 외에 추가적으로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 네트워크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단계 모형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활용과 정보 변인을 투입하여 직업포부에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과정은 성별, 학년, 전공 계열의 구분 없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요인별 기술통계

각 요인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으로는 부모 직업은 평균 3.41로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은 14.74로 비교적 높았다. 가정 내 사회자본인 부모-자녀의 관계는 평균 3.97이며, 가족 외 사회자본인 인적 네트워크는 평균 6.6으로 인맥형성과 직업정보를 얻기 위한 SNS 사용여부 평균 .28이며, SNS 정보의 도움정도는 평균 2.66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Factors descriptive statistics

	M	SD	N
Occupational Aspiration	3.34	0.62	271
Parent's Vocational	3.41	0.74	271
Parent's Educational level	14.74	2.21	271
Parent-child Relationship	3.97	0.68	271
Human Network	6.60	3.65	271
SNS use	0.28	0.25	271
SNS Information	2.66	1.19	271

4.2 상관관계 분석

직업포부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부모의 학력($r=.113, p<.05$), 가족 내 사회자본인 부모-자녀의 관계($r=.184, p<.01$), 가족 외 사회자본인 인적 네트워크($r=.375, p<.001$), 인맥형성 및 직업정보 목적으로 한 SNS사용여부($r=.202, p<.001$), SNS 사용을 통해 얻은 정보의 도움정도($r=.150, p<.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의 직업 점수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자본 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인적네트워크, 사회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진로포부에

<Table 3> Factors correlation analysis

	Occupational Aspiration	Parent's Vocational	Parent's Educational level	Parent-child Relationship	Human Network	SNS use	SNS Information
Occupational Aspiration	1						
Parent's Vocational	0.080	1					
Parent's Educational level	0.113*	0.498	1				
Parent-child Relationship	0.184**	0.079	0.074	1			
Human Network	0.375***	-0.027	0.040	0.101*	1		
SNS use	0.202***	0.015	0.016	0.025	-0.140	1	
SNS Information	0.150**	-0.038	-0.008	0.085	0.034	0.638	1

* $p < .05$, ** $p < .01$, *** $p < .001$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함의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학력은 자녀의 직업포부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4.3 직업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 분석

직업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학력, 직업, 부모와 자녀관계의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 인 인적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내용은 <Table 4>과 같다. 모형 1, 2, 3, 4 는 직업포부를 각각 1.3%, 4.4%, 17.1%, 20.3%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 1은 설명력은 총분산의 1.3%를 설명하고 있으며 F 값은 1.829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4.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10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에 비하여 3.1% 상승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beta=.176, p<.01$)가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업포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콜먼의 연구와 일치하며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 따라서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 신뢰와 안정감 등을 심어주었을 때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3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17.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3.7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모형 2에 비하여 12.7% 상승하였다. 하위요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beta=.139, p<.05$) 외에도 본인이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얻게 된 인적네트워크($\beta=.360, p<.001$)가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20.3%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1.2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형 4의 설명력은 모형 3에 비하여 3.2% 상승하였다. 모형 4에서 추가 된 변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SNS 사용($\beta=.127, p<.05$)과 SNS 정보의 도움($\beta=.131, p<.05$)이다. 이는 사회관계 망 서비스의 사용이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SNS 활용이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신동준·류지영[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의 다양한 정보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도 직업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어떤 변수가 직업포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 4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형 4에서 나타난 직업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모임을 통해 얻게 된 인적네트워크이다. 표준화 계수는 .335로 다른 변수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서도 직업포부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적모임이나 사적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직업인과의 관계형성은 그라노베터[40]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취업준비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학력과 직업은 직업포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9,32]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종범·최동선·오창환[29]은 부모의 직업지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i>b</i>	β	<i>b</i>	β	<i>b</i>	β	<i>b</i>	β
socio-economic background	Parent's Vocational	0.02	0.03	.018	.021	.038	.046	.056	.067
	Parent's Educational level	0.02	0.09	.025	.089	.018	.066	.013	.045
social capital in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160	.176**	.127	.139*	.110	.121*
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	Human Network					.061	.360***	.057	.335***
	SNS use							.315	.127*
	SNS Information							.068	.131*
<i>R</i> ²		.013		.044		.171		.203	
Adjusted <i>R</i> ²		.006		.033		.159		.185	
<i>F</i>		1.829		4.104**		13.765***		11.229***	

p*<.05, *p*<.01, ****p*<.001

위와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영·유백산[9]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직업과 교육수준을 구성하고,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가구 소득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업포부 수준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 네트워크, 인맥형성 및 직업정보를 목적으로 활동한 SNS 활용이다.

그러므로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되어온 사회계층 이동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자본 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 내 사회자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외 사회자본인 인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용이 직업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구성요인 중 부모의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부모의 직업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밖의 변인으로 선정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활용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다중회귀 모형으로 확인한 결과 사회자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활용 및 정보의 도움 정도는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부모의 직업, 학력은 직업포부와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족 내 사회자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은 개인이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자본이 형성 될 수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신뢰가 있지 않으면 사회자본이 창출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13, 14]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자본이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관계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독립적으로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을 원활하게 창출토록 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 외 사회자본은 사회활동을 통해 얻은 인적 네트워크와 직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 등이 직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콜맨[11]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사회자본은 단일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가정과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유대감이 핵심이다.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정 안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과 더불어 공적·사적 모임 등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형성된다. 무엇보다 사회자본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와 규범,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기에 대학생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학교 및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족 외 사회자본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인맥형성 및 SNS 활용을 통한 직업정보의 취득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계층의 대학생에게 사회이동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자본 변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부모의 학력, 직업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29]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김진영·유백산[9]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지위와 어머니의 지위가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구성요소 차이 그리고 각각의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가 배가 되거나 상호대체되는 효과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9]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부의 학력이 높고 자녀의 높은 성적과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학력이 낮은 학생이어도 성적이 향상되면 직업포부의 격차는 일정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다중회귀 모형에서 나타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구성요인의 선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유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 모두 직업포부 수준의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대학생의 사회계층 이동에 사회자본의 소유 및 획득 과정이 중요한 성취지향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자발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한 가족 외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M. R. Kim, "How do students experience different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different social class of family in Korea", *The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4, No. 2, pp. 25-65, 2014.
- [2] <http://kess.chedi.re.kr/index>.
- [3] H. N. Phang, K. H. Kim, "Opportunity and Inequality: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36, No. 4, pp. 193-222. 2002.
- [4] K. S. Shum, D. H. Seol, "Occupational Aspiration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y Society*, Vol. 33, No. 2, pp. 33-59, 2010.
- [5] J. H.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ultural Capital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Educational Aspiration and Vocational Aspiration*, Ph.D. thesis, 2012.
- [6] G. S. Lee, Y. B. Kang,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ference job and Vocational Values of the youth".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2006.
- [7] B. S. Yu, S. Y. Shin,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tyles according to family background on teacher-students relationship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4, pp. 51-78, 2012.
- [8] S. Y. Shin, K. K. Kim. "The effects of family

- background on occupational aspi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18, No. 1, pp. 121-141, 2012
- [9] J. Y. Kim, B. S. Yu, “The effects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 levels of children’s occupational aspiration: focusing on the mediation process and interaction effec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5, No. 2, pp. 23-46, 2015.
- [10] A. K. Eo, “A Multilevel Analysis on Change of a College Student’s Job Aspiration and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 1555-1571, 2009.
- [11] Coleman, J.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5-120, 1988.
- [12] W. S. Kim, J. W. Park, “Path Analysis on Family Influences Affecting the Career Aspir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1, pp. 203-229, 2013.
- [13] D. Y. Lee,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of Children in Family at Each Social Clas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14] J. Y. Hyu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high school students’ family background,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at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varying relationships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15] C. G. Kim.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Approach for the Prevention of Dropping out from Secondary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4, No. 3, pp. 21-39, 2004.
- [16] U. H. Oh. Education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ocial Capital : From Coleman and Beyond, Kyoyook book. 2013.
- [17]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 [18] Y. J. Hwang, G. G. Kim, “Determinants of student & quot;s satisfaction with general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6, No. 3, pp. 181-203, 2006.
- [19] M. S. Son, S. H. Lee, “Effects of the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social abilities from age 4 to age 6”,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 No. 2, pp. 49-77. 2008.
- [20] H. K. Shin, W. Y. Kim, “A Study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Its Decision-Related Motiv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Rol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Family Backgrounds and Schoo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8, No. 2, pp. 47-83. 2005.
- [21] J. H. Lee, K. K. Kim,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and School on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13, No. 2, pp. 175-208, 2007.
- [22] Lin, N, M. Dumin,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Vol. 8, No. 4, pp. 365-385. 1986.
- [23] Y. S. Lee, J. S. Lee. “Research Examining Factors Affecting Individual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Korea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3, No. 3, pp. 316-339. 2009.
- [24] S. Y. Shin, S. W. Le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 Focusing on Twitter &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yber 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29. No. 4, pp. 191-232. 2012.
- [25] S. S. Lee, “Social Capital as Its Cause and the Point at Issue: Comparison between Twitter and Facebook”,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24, No. 2, pp. 216-290, 2013.
- [26] L. S, Gottfredson, “Circumspection and

-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8, pp. 545-580. 1981.
- [27] W. H. Sewell, A. O. Haller, A. Portes,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4, No. 1, pp. 82-92. 1969.
- [28] J. S. Ashby, I. Schoon, "Career success: The role of teenage career aspirations, ambition value and gender in predicting adult social status and earn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7, pp. 350-360. 2010.
- [29] J. B. Lee, D. S. Choi, C. H. Oh, "Determinants of Occupational Aspirations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Jourano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4, No. 4, pp. 25-43. 2012.
- [30] Korean Evaluation Association, Educational evaluation thesaurus, HAKJISA. 2004.
- [31] H. H. Park, Path Analysis between University Hierarchy,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Parents, Occupational Status, Dong-A University, Ph.D. thesis, 2016.
- [32] K. Y. Jang, Determinants of the first job attainment for college graduates in Korea : Effects of socio economic statu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preparedness, Hanyang University, Ph.D. thesis, 2008.
- [33] H. J. Yoo, W. H. Kim, "The Occupational Status Scores in Korea: Past and Pres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0, No. 6, 2006.
- [34] Y. J. Kim, Stratum Consciousness and Its Determinants among Korean Military Professionals: With focus on field and company-grade officers in the R.O.K Arm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35] J. H.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ultural Capital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Educational Aspiration and Vocational Aspiration, Gong Ju University, Ph.D. thesis, 2012.
- [36] D. J. Shin, J. Y. Ru, "The Effect of Korea Youth Social Capital On the Employmen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17. No. 4, pp. 102-115, 2014.
- [40] Granovetter, M,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6, pp. 1360-1380, 1973.
- [41] J. C. Hel,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on empowerment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219-228, 2016.
- [42] J. Y. Chang,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13-219, 2015.

저자소개

안 관 수(Kwan-Su An) [정회원]



- 1990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1994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평생교육학, 교육사회학, 인문융합연구

황 재 연(Jae-Yeon Hwang) [정회원]



- 2009년 2월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6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초빙교수

<관심분야> : 평생교육, 교육사회학, 인문융합